마음을 향한 길은 넓어지고 있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불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불교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불교가 사회와 만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불교를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등회 역시 마찬가지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불교 의례이면서도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됐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찾는 시민들도 신행을 넘어 잠시 쉬어가고 마음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불교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선명상 확산 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화두로 선명상을 제안했고, 국제선명상대회와 담선대법회, 생활 속 수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행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길을 꾸준히 넓혀 가고 있다. 여기서 선명상의 의미를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계종 수행의 중심은 오랫동안 간화선이었다. 화두를 통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한국 선불교가 이어온 가장 큰 전통이며 오늘도 변함없는 수행의 중심이다. 선명상은 한국 선불교의 전통과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수행의 첫걸음을 조금 더

선명상, 한국 선불교 전통과 다른 길 아냐
현대인 수행 첫걸음 더 쉽게 내딛게 도와
한국불교, 더 넓고 친숙하게 열어가고 있어

쉽게 내딛도록 돕는 과정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선명상은 간화선으로 들어가는 문을 더 넓게 여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람마다 수행의 출발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박람회를 통해 불교를 만나고, 어떤 이는 연등을 달며 부처님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이는 선명상을 통해 처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다르지 않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밝히고 본래의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다.

최근 한국불교가 사회로부터 조금씩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와 수행, 전법과 치유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종단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려는 노력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연결이다. 사찰과 종단의 여러 부서, 수행과 문화, 교육과 포교가 서로 이어질 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밖으로 향하는 힘은 결국 안에서부터 나온다. 내부의 화합과 신뢰가 단단할수록 사회는 한국불교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연기(緣起)를 말해왔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 한국불교가 만들어 가는 변화 역시 다르지 않다. 문화와 수행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며, 전통과 현대가 서로를 비출 때 비로소 더 큰 원력이 만들어진다. 최근 한국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시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이어온 그 길을 오늘의 사람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친숙하게 열어가는 일이다. 그 길이 앞으로도 사회와 더욱 깊이 공감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 종교 지도자의 역할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이 사회의 주인인 사회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종교는 그 시민이 제대로 살아가고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 지도자들도 먼저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종교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 물음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역할을 맡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우선 우리 시대 시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시대와 사회의 종교 지도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명상과 같은 구체적인 마음공부의 방법을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종교는 또한 사람들이 어느 굽이에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의미 물음에 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입명(立命)의 차원을 지닌다.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삶서 몸소 보이며
사회의 고통 마주할 수 있는 역량 필요해
때론 시민들 향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이 차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삶의 의미 물음을 잘 감당해 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고상한 이야기를 할 경우 자칫 무시나 외면을 당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

독신 수행자의 삶을 지향하는 불교와 가톨릭의 출가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은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급속한 물신주의(物神主義) 정착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돈이 수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그 자체로 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돼버린 듯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민사회'이다. 말 그대로 돈이 신(神)의 위치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충고가 우리 젊은이들을 이끄는 구호가 돼버렸을 정도이다.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먼저 이런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의 수많은 고통들과 마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과 기후 위기, 끊이지 않는 전쟁 위기와 같은 이 시대의 복합적 위기 현상을 직시하면서,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毒)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도 요구된다.

그렇게 확보한 깨달음의 지혜를 스스로의 삶에서 보여주면서 시민들을 향해 때로는 약이 되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 지도자부터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불교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정치와 경제 영역의 지도자들에게도 서늘한 경책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社 說

종책과 비전 겨루는 공론 장 되길

오는 9월 3일 치러질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잇따른 성명 발표와 중앙종회 종책질의에 따른 미래본부의 입장문 발표, 야단법석승가회의 기자회견과 총무원의 담화문 발표까지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책을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며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일은 종도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일부 사실만을 부각해 전체를 왜곡하는 폭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늘날 정보는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 한 번 퍼진 왜곡된 정보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더라도 이미 종단의 신뢰와 권위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힌다. 결국 그 피해는 특정 후보나 특정 집행부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가 떠안게 된다.

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의혹·비방
건전한 비판으로 신뢰·화합 지켜야

특히 종단 선거는 일반 정치와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총무원장은 향후 4년 동안 종단 행정을 책임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할 지도자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종단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감정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종책과 비전, 수행력과 지도력을 놓고 평가받는 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교구본사 주지들이 발표한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 스님들은 종헌·종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종책 중심의 정책선거, 종단 화합을 위한 품격 있는 선거문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진영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 선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종단 발전에 큰 자산이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언사는 여론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종단의 미래를 밝히지는 못한다.

총무원은 7월 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최근 종무행정과 관련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종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담화문이 곧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무행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집행부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종단의 예산과 정책, 행정이 투명할수록 신뢰도 높아진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수행하고 함께 종단을 이끌어갈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종헌·종법을 존중하고 종도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법한 선거, 그리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공론의 장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